

2018년 10대 소비 트렌드

‘워라벨 세대·언택트 기술’ 등 주목해야



연말마다 다음 한 해의 소비 트렌드를 예측해 온 김난도 서울대 소비자학과 교수가 2018년의 소비 트렌드 키워드로 ‘웍 더 독’을 제시했다.

‘웍 더 독’은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는 의미의 영어 표현으로, 주로 주식시장에서 선물매매가 현물 시장을 좌지우지할 때 많이 쓰인다. 김 교수는 30일 내년 소비 트렌드 전망을 담은 ‘트렌드 코리아 2018’(미래의창 펴냄) 출간 기념 간담회에서 ‘웍 더 독’을 키워드로 선정한 데 대해 사은품을 본 상품보다, SNS(소셜미디어)가 대중매체보다, 1인 방송이 주류 매체보다, 카드 뉴스가 TV 뉴스보다 인기를 끄는 등 말 그대로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현상이 속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가 사용한 ‘웍 더 독’은 내년 10대 소비 트렌드의 영문 앞글자를 조합한 용어(WAG THE DOGS)이기도 하다. 김 교수가 꼽은 10대 소비 트렌드는 ‘워라벨’(Work-life-balance), ‘작지만 확실한 행복’(소확행), ‘나만의 케렌시아’, ‘매력자본’, ‘플라시보 소비(가심 소비)’, ‘언택트 기술’, ‘미닝아웃’, ‘만물의 서비스화’, ‘소비를 통한 자존감 회복’, ‘대인관계’ 등이다.

이 중 김 교수는 ‘일과 삶의 균형’을 뜻하는 ‘워라벨’에 특히 주목했다. 그 동안의 ‘워라벨’이 서구식 일과 가정의 균형을 의미했다면 새로운 ‘워라벨’은 일과 개인생활의 균형을 의미한다.

〈표〉 김난도 교수가 전망한 2018년 10대 소비트렌드

소확행	작지만 확실한 행복추구
플라시보 소비	플라시보(위약) 효과처럼 가격보다 심리적 만족이 중요
워라벨 세대	일과 생활의 균형이 중요한 세대
언택트 기술	키오스크, 챗봇 등 무인서비스 기술
나만의 휴식처	수면카페, 대나무숲, 등 익명의 휴식 공간
만물의 서비스화	렌탈 서비스 등 서비스 비즈니스 확산
매력자본	카카오 캐릭터 등 개성 있는 매력이 돈 되는 시대
미닝아웃	정치, 사회적 신념을 내세운 소비 행태
대인관계	관계 권태기, 티슈인맥 등 기능 중심 관계 맺기
자존감	자신에게 선물하는 보상적 소비 인기

김 교수는 “1988~1992년 출생한 ‘직딩’(직장인)들이 새로운 ‘워라벨’ 트렌드를 이끌 것”이라며 이들이 2018년에 가장 강력한 인플루언서(인플루언서·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김 교수는 2008년부터 출간해 온 ‘트렌드 코리아’ 시리즈 10주년을 맞아 10년간의 9가지 메가 트렌드(MEGA TREND)로 ‘과시에서 가치로’, ‘소유에서 경험으로’, ‘개념있는 소비의 약진’, ‘공유경제로의 진화’ 등을 꼽았다.

김 교수는 “특히 내일은 오늘보다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의 전제가 무너진 점이 매우 컸다”면서 “이런 변화가 작은 일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현실에서 즉각적인 행복을 찾을 수 있는 소비로 관심을 유도하는 경향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KAA**

이명진 soziro01@kaa.or.kr